



종이화폐의 가치도 실물화폐의 연장선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화폐도 예외는 아니다. 종이화폐는 처음부터 화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과 같은 실물화폐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대용물이었으며,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화폐처럼 사용했다. 종이증서가 구매력을 갖게 된 것도 금이라는 실물과의 연결 덕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은행들은 실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증서를 발행해 이윤을 추구했고, 이는 자유시장 내에서 화폐의 가치 하락과 교환 요구 증가로 이어져 파산 위험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고, 결국 중앙은행이라는 독점기관이 등장했다. 중앙은행은 기존 증서를 자국 화폐로 교환하면서 명목화폐 체제를 정착시켰고, 그 구매력은 여전히 과거 실물화폐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정부가 아닌 시장의 역사에서 나온다. 결국 화폐는 정부의 선언이나 사회적 합의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에 있으며, 오늘날의 종이화폐도 과거 실물화폐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가치를 이어받고 있다. 화폐는 명령으로 만들어질 수 없으며,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신뢰와 구매력이 그 본질이다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mises.org/mises-wire/how-does-money-acquire-its-value>